

올바른 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양재혁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



인간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집단을 이루었고 그 속에서 일정한 약속을 지키며 공동체의 번영을 구가해 왔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시키며 삶을 이루어온 것이다. 결국 한 시대의 삶의 형태와 내용은 당대의 교육의 내용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교육의 국가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그 중요성이 출몰 강조되어온 바이다. 즉, 한 시대가 바라는 이념과 국가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에 상응하는 인간의 형성이 필수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최근 일고 있는 자국의 적극적 실리추구를 목표로 한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globalization) 경향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못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내용은 무엇이며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국제경쟁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요인은 생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그것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명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민주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사회와 역사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에 맞게 통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교육의 내용과 형태가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괴리되어 정권의 이익에 결부시키려는 시도를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국민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근대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주권이 한시적 정부나 강조된 국가가 아니라 인간 개개의 권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어떠한 원칙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혼돈의 상태 그 자체이다. 시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민주적 질서는 찾을 수 없고 약자를 덮고 서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전제시대의 가치관이 교육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교육은 단지 독재정권의 유지에 필요한 내신성적 중점의 통제와 억압만 가중되고 있을 뿐 열려진 사회를 위한 교육의 이념과 철학은 소멸되고 초기 자본주의적 질서하에서 거대세벌과 결탁된 정권의 지배논리에만 길들여지는 기능교육장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프로그램의 내

용을 보면 이러한 비민주적 교육현실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저의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영어 조기교육이 그렇고 국·영·수 학원과의 허용, 특수목적 고교의 설치 운영, 중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 육성 방안 등이 특수계급을 육성하는 실례이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을 자본주의 경제의 일개 생산 요인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인간의 도구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물론 기득권 집단에게는 마냥 흡족한 것이겠지만 사회정의라든지 인간평등 그리고 인간성 실현을 위한 국민대중의 민주적 성장을 지향한 참된 교육이념의 실현에는 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내신성적 차별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까닭에 성적 차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전시대적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교과목을 국제경쟁력 강화에 맞게 개편한다는 데에도 반대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성과 특수성을 구별하는 통찰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나는 이 시점에서 실로 늦은 감이 있으나 시급히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변화한 시대의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학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분석과 통찰을 포함한 추상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인식과 사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비판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을 통한 사회 개혁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판철학은 시대를 불문하고 필수일 따름이지 선택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교육개혁과, 나아가 인간존엄성 및 민주화를 위해서는 먼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철학 교육은 늦출 수 없는 긴요한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국민학생의 영어 조기교육이나, 특수 영재학교와 대학연구비 지원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진정으로 국제경쟁에서 승리하려면 현대판 산업노예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교육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치가가 우리의 국가대표로 되어야 한다. 전시대적 물인간적인 가치에 순응해온 기계화된 기능인만으로는 열려진 세계에 동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인간화가 근본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람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을 때 그것의 극복을 위해 창조적 상상력을 동원한다. 주지하다시피 그것이 인류의 역사요 철학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 즉 비판철학을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다. 우리와는 반대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사회비판철학 교육이 어떠한지 학계나 정부당국은 결코 모르지 않으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입학 시험장에서 '일과 오락은 구별할 수 있는가?',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 등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할 때 전시대적 통제와 억압이라는 교육방법은 개선될 것이다.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는 철학은 시대정신이다. 그것도 실천에 옮겨져야 할 열린 사회의 열린 정신인 것이다. GNP의 몇 퍼센트를 교육비에 투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을 교육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리는 이렇듯 평범한 진리를 너무도 큰 댕가를 치르고 역사 속에서 체험한 바 있다. 이제 비민주적 가치를 다름 아닌 교육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하며 그 중심에는 비판철학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를 '내신성적'이라는 울가미로 묶어둘 것인가! 정권유지를 위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 정치적 술수를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철학을 교육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교육하여야 한다. ■

양재혁/성균관대 동양철학과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칼스루헤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정자와 모택동의 변증법』 외 다수가 있고, "현대사회와 기층윤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